

#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

## 최종 심의평

4명의 심의위원은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은 단순 창·제작 비용 지원 성격의 창작지원금이 아닌, 예술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‘한 사람의 예술인’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에 임했습니다. 청년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, 장차 예술 현장에서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예술인들이 ‘상상력’의 빈곤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데 큰 이견 없이 합의하였습니다.

4명의 심의위원들은 유망한 청년예술인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. 무엇보다 기존의 문학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장르소설을 비롯해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웹소설 등의 ‘산문적’ 글쓰기가 청년예술인들의 큰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. 시 장르 신청자가 전무한 것 또한 이 점에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. 장차 글쓰기 형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글쓰기 문법의 변화 또한 예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장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.

심의는 자격 평가를 비롯해 사업성 평가, 기대효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10명의 청년예술인을 선정하였습니다. 무엇보다 창작 및 자립활동 계획과 역량이 구체적이고 우수한지를 확인하고자 했고, 프로젝트 내용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있느냐를 파악하고자 했으며,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. 저마다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 스스로 서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매우 높았고, 경제적 궁핍을 겪는 청년예술인 또한 적지 않아 서류를 검토하면서 가슴 한켠이 시리는 경험을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
선정된 10명의 청년예술인 중 평론분야가 매우 호평을 받았습니다. 자신의 비평 및 연구 활동과 연계된 활동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. ‘기억의 연결’이라는 주제로 홀로코스트 현장을 취재하는가 하면, 비평 온라인을 고민하며 문예지 바깥의 ‘문예지’를 고민하고자 한 제안은 지금 여기 한국문학장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되리라 믿습니다. 장막극을 준비하려는 희곡 분야 또한 예술인으로서의 의지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아동·청소년 및 소설 분야 또한 자기 구상과 계획이 매우 구체적인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.

한 사람의 청년예술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. 자기만의 관점으로 ‘자기 질문’이 있는 글쓰기를 꾸준히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‘생존’과 ‘생활’ 사이에서 창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. 이 점에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웹소설을 비롯한 일부 글쓰기의 경우, 신변잡기의 글쓰기 또는 기존에 ‘쓰던 대로’ 쓰려는 관행과 관성에서 조금 벗어나 자기 객관화하려는 작업이 매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은 누군가가 “저는 엄지손가락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지만, 상상력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”(어슐러 K. 르 권)라고 한 말처럼 ‘상상력의 빈곤’을 막는 사업이라고

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업을 디딤돌 삼아 예술 활동의 징검다리를 놓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. 선정된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,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
**2023. 5. 16.**

**심의위원    고영직, 김성규, 노경실, 박설희**